

전북자치도 도민 보고회 5000여명 참여 '성황'

도 핵심산업·지역별 사례 도지사 직접 설명 큰 호응 단체장들 지역별 발전전략 발표로 주민체감도 '상승'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갈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정에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부터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총 7회에 걸쳐 시·군민 대상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도민 5천여명이 참석해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도의 미래 발전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해 각 시군 교육장들도 보고회장을 찾아 지역별 특색 발전전략과 교육행정과 연계 협치를 통한 '함께 성공' 전

락을 구상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비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수렴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직접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보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경과, 김관영 지사의 도민 보고 및 질의응답,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발표, 도민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가 '전북형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발굴한 전북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전북의

5대 핵심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지역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위한 주요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여기에 도내 시·군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과 밀접한 주요 특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궁금증을 가졌던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질의에 답변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 특별해지려면 도민분들이 전북만의 특별함을 담은 특례를 발굴하고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도민들의 정책 제안과 14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고회 후 "현장에서 도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도정과 특례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발굴된 특례들은 조속히 실행해 도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전북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살려내려는 도정에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보고회 외에도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토론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333개 특례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실시계획 용역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7일 정읍 생고을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있다.

임상규 자치도 행정부지사, 전통시장서 민생현장 살피

시장 방문객과 악수 나누며 민생안정 노력키로 약속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7일 정읍 생고을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다.

정읍 생고을시장은 32개 점포가 운영 중인 정읍 지역의 중심 백년시장으로,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두고 성수품 장을 보러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시장 방문객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이용 홍보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생고을시장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도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을 청취하면서 전통시장을 통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 보다 5만7,000원 더 저렴하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조사결과를 얘기하며 전통시장 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처음 맞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만큼 상인과 주민 모두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도민 민생안정과 안전관리에 함께 고향과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 방문 시 정과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 연휴 동안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상황 점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비 △연휴기간 문어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휴기간 도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2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며, 보건소 등 공공기관 137개소, 병의원 302개소, 약국 326개소는 연휴기간 중 지정된 날짜에 운영된다.

또한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기하는 등 재난 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0),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고령자 위한 복지주택 들어선다

자치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 부안군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돼 국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50호)을 비롯해 경북 포항, 인천 계양, 경기 하남 등 4개 지구(350호)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과 건강·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기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치매예방교실, 건강증진실 등을 특화한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 1,000㎡를 설치하고, 어르신 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 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안군의 고령화율(38%)이 도내

평균 고령화율(22.18%)의 1.7배에 달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고령자 주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특목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반경 1km 이내 군청, 수영장, 병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시설을 운영해 다양한 돌봄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파스 한 보급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내 고령자복지주택은 3개 지구 168호(부안 봉덕 80호, 정읍 연지 88호, 고창 고창읍 128호)를 준공했으며, 5개 지구 442호(전주 평화 12호, 군산 오룡 150호, 장수 정수읍 100호, 장수 계남 80호, 순창 순창읍 100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주시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선정돼 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도 부안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고령자복지주택 50호와 사회복지시설 1,000㎡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올해 도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시·군 공통보장 6개 / 1천만원 한도 → 10개 / 3천만원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보장내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장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폭발·화재·붕괴 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을 14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말 누적 1,061명에게 38억5,000만원의 보상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기존 공통보장항목 6개에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강도 사망·상해후유장애를 추가해

공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보상한도도 기존 300~1,000만원 한도를 최대 500~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하여 재난 및 사고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잠숙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재난부서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사회복합화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하여 신종재난, 민도가 높고 공범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